



허영엽 마티아 신부 | 서울대교구 홍보국장

## | 십자가의 승리

“이제 저는 얼마 못 살 터이니 추기경님께서 다 알아서 해주세요. 저는 이제 마음 편하게 지낼게요.”

지난 2011년 어느 날, 이점홍 골롬바 할머니가 당시 교구장이던 정진석 추기경을 만났습니다. 당시 92세였던 할머니의 손에는 통장이 한가득 들려있었습니다. 그는 그날 자신이 평생 모은 재산 11억 원을 아무 거리낌 없이 기부하고 추기경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에게 남은 잔액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골롬바 할머니는 구면이였습니다. 할머니는 1995년, 지금의 교구 노동사목회관이 세워진 부지를 교구에 기증하셨습니다. 2005년에는 본인이 살던 종로구 돈의동 자택을 교구에 내놓으셨습니다. 당시 시가로도 수백억이 넘었습니다. 가난한 집의 7남매 장녀로 태어난 할머니는 9살부터 공장에서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공장에서 받은 점심도 혼자 먹기 아까워 가방에 넣어두고 저녁에 집에 가져갔을 정도로 절약하며 생활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삶바느질을 하며 부모님과 형제들, 조카들까지 부양하며 모은 피 같은 돈이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정 추기경을 만난 자리에서 “이제 유일한 소원은 하느님께서 저를 잠자는 것처럼 조용히 데려가 주셨으면 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소원대로 지난 2월 7일 향년 98세로 평안히 하느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사셨기에 돈의 가치

와 중요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분에게 돈은 눈물과 고통의 열매와 같았습니다. 그럼에도 세상을 떠나기 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모두 내려놓았습니다. 이는 세속에서는 마치 죽음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골롬바 할머니는 그 순간 어느 때보다도 자유롭고 편안한 모습이셨습니다. 마치 인생의 마지막 승리자처럼 빛이 났습니다.

오늘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죽음의 길을 가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전능하신 하느님의 아들’, 즉 ‘메시아’로 생각하고 환영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로마를 정벌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전능하신 힘을 갖고 구세주로 입성을 하시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한 메시아는 세속적인 성취가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초월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용서와 희생으로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없이 십자가의 길에 오르시고, 수없이 많은 모욕을 받으며 죽임을 당하시면서 하느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외치신 십자가의 길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인류에 대한 사랑과 희생으로 고난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모두 마음 깊이 새겨야 하겠습니다.



### 노원성당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 585

노원성당은 1989년 2월 도봉동성당과 상계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89년 2월 도봉동성당과 상계동성당 관할구역에서 일부를 분할하여 상계6동에 위치한 성모자애재활원 부지에 노원성당을 설립했습니다. 당시 신자 수는 5,074명이었습니다. 설립 초기부터 활성화된 사목이 이루어졌고, 1997년 상계1동 지역에 대지를 매입하여 수락성당(현 수락산성당)을 분가시켰습니다. 2005년 10월 교육관을 신축하였고, 2006년 3월에는 대성당을 리모델링하여 제5 노원지구장 본당으로서 제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석촌동성당 노원성당 풍납동성당



김명중 시몬 신부 | 전산정보실 부실장